

주간 테러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25. 2. 21(금)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미 주

- **美, 파키스탄 내 테러 위협에 대해 경고**
 - 2.13 美 당국은 파키스탄의 주요 관광지인 '파이살 모스크'에서 TTP 무장 요원이 등장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자, 테러 위협 경보를 발령하며 자국민들에게 '파이살 모스크' 여행을 금지한다고 경고
- **美 정보기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연내 공습 가능성 제기**
 - 2.13 언론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평가 분석서를 올해 초 美 정보기관들이 작성했으며, 일각에서는 수개월 내에 공습이 감행될 가능성을 제기
 - ※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핵시설에 대한 공격에 취약해졌다”며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언급

유럽

-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테러 공격 계획 용의자 체포**
 - 2.11 언론은 스웨덴 보안청이 스톡홀름 지역에서 테러 범죄를 계획하던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범인은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테러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
 - ※ 스웨덴은 지난 '23년 6월과 7월에 쿠란 소각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슬람 신자들의 시위와 위협이 촉발되자 테러경보를 4단계(높음)으로 상향 조정
- **프랑스, 술집 내 수류탄 폭발로 12명 부상**
 - 2.13 언론은 프랑스 그르노블市の 술집에서 AK-47 소총을 든 괴한 1명이 수류탄을 투척해 1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으며, 경찰은 범인과 범행 동기를 특정하지 못했으나 마약 밀매와 연관성을 수사 중이라고 발표

○ **獨, 뮌헨 차량돌진 사건 ‘종교적 동기’ 테러여부 수사**

- 2.15 獨 검찰은 지난 13일 독일 뮌헨에서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남성 용의자에 의한 차량돌진 사건을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의심된다며 살인미수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발표
- ※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체포 당시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외쳤으며, 고의로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차를 운전했다는 자백을 했다고 발표

○ **오스트리아, 시리아 남성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6명 사상**

- 2.16 언론은 오스트리아 ‘필라흐’ 시내 광장에서 시리아 국적의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으며,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IS와 연계한 공격”이라고 규정
- ※ 경찰당국은 용의자 자택 수색과정에서 이슬람국가 깃발 등 IS에 충성을 맹세한 흔적을 발견했으며, 추가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

중 동

↑ [United Nations Office of Counter-Terrorism\(유엔 테러 방지 사무국\)](#)

○ **이슬람 연합, UNOCT와 테러 대응 협력**

- 2.11 언론은 이슬람 군사 테러 방지 연합과 UN 테러 방지 사무국은 테러에 대항하는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세계 안보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
- ※ 양해각서에는 역량강화, 훈련, 인식제고, 새로운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공동 테러방지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라 부언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종교 갈등으로 6명 사망**

- 2.13 언론은 나이지리아 베누에주에서 무슬림 ‘폴라니족’ 목동들이 기독교인 마을을 습격해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납치되었다고 보도했으며, 이 지역 이주민 단체장은 공격자와 나이지리아 지도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 ※ 美 비영리 단체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GCR)’는 최근 2년간 9,814명의 나이지리아 기독교인이 보코하람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

나이지리아, 대중교통 겨냥 연쇄 폭탄테러

- '15.2.25 나이지리아 요베州 버스 정거장과 카노州 버스 터미널 두 곳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
 - 1차 폭발은 11:40경 요베州에서 정류장에서 일시 정차중인 미니 버스에 한 남성이 짐칸에 가방을 싣고 막 승차하는 순간 발생, 승객 12명 전원을 포함해 총 17명이 사망하고 27명 부상
 - * 짐칸에 가방을 싣고 탑승하려던 승객이 범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
 - 2차 폭발은 1차 공격 발생 약 4시간 후인 15:40경 북부 카노州의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승객들이 하차하는 순간 발생, 10명의 추가 사망자 초래
 - * 카노州 우딜發 버스 남성 승객 2명이 터미널에서 하차 직후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
- 테러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보코하람'이 요베州 및 카노州를 근거지로 활동하고 유사 테러를 자행한 前例를 이유로 同 사건도 이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한편, 나이지리아 「궂력 조너선」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롯한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보코하람 진압 의지를 표명
 - * 나이지리아는 니제르·카메룬·차드와 4개국 연합군을 편성, '보코하람' 소탕에 공동 대응

< 보코하람(Boko Haram) >

- (결성) '서구식 교육은 죄악' 이라는 뜻이며, '02년 「무함마드 유수프」가 조직
 - * 테러단체 지정 : 영국('13.7), 미국('13.11), UN('14.5)
- (핵심인물) 「아부바카르 셰카우」(現 최고 지도자)
- (연계세력) ISIS, 바쿠라그룹
- (활동지역) 나이지리아 중·북부, 카메룬 북부, 차드 서부, 니제르 남동부 일대
- (활동수법) 對정부 게릴라戰, 마을 습격 및 민간인 무차별 학살
- (참고사항) '15.3월 「아부바카르 셰카우」가 ISIS에 충성을 맹세하였으나, '16.8월 ISIS가 「알 바르나위」를 신임 지도자로 임명하자 내분 발생, 이후 「아부바카르 셰카우」가 이끄는 보코하람과 「알 바르나위」의 「ISIS-西아프리카지부」로 분열